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표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許可 (毎月一日発行)

2019년 3월 1일 (금) 제 782 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김 중 현 · 편집인/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100년을 맞이한 「2·8 독립선언」 · 「3·1 독립운동」에 대한 재일대한기독교회 성명서

I. 전문

1919년 <2·8 독립선언>이 동경 조선YMCA(현 재일본한국YMCA)에서 동경유학생들에 의해 낭독되었다. 이 땅은 1908년 YMCA 총무 김정식과 유학생들이 의견을 모아 이 일본에 재일동포 교회를 설립하였던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의 첫 걸음을 시작한 장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는 현해탄을 건너 본국의 <3·1 독립운동>에 거센 파장을 일으켜, 그 때로부터 100년을 맞이하였다.

II. 역사적 경위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자원과 노동력,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민지 확대가 구미 각 나라에 의해 강화되었다. 19세기 초에는 아시아 국가도 그 영향을 받아, 일본도 구미 나라의 압력으로 개국하게 되었지만, 구미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를 얻기 위해 침략으로 돌진 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 된 국가에서 독립 운동과 저항 운동이 일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에서도 총독부 통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2·8 독립선언문>은 본국의 지식인 혹은 애국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학생들이 선언하였다. 이 <2·8 독립선언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독립 국가의 자부심과 함께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한일 합병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만국평화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일본 주재 각국의 대사·공사 앞에서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 뜨거운 마음이 <3·1 독립운동>에 계승되어 한반도 전체를 움직인 것이다.

III. 「2·8 독립선언」 · 「3·1 독립운동」 의 오늘날 현실적 의의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자국 우선과 경제 우선을 들어 빈부의 차, 격차사회가 확대하여 배외·배타주의, 인종차별주의가 머리를 들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 일본에도 그 영향이 적지 않아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시행 후에도 일본의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는 <재일동포> 뿐만 아니라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소수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차별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외국인 기능 실습생 수용 확대는 단순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열악한 환경의 고용정책으로 향할 위험성이 포함된 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적 경제적 식민지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올해 예정되어 있는 천황의 퇴위 및 즉위 의식은 <종교의 자유> 정교의 분리를, <종교의 자유>가 원하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 일본이 편향된 역사관과 정치에 의해 전쟁 암흑시대로 돌아 갈 것처럼 보인다.

「2·8 독립선언」과 「3·1 독립운동」은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민족이 자유와 평등의 기본이 되며 생존과 발전을 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IV.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성명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는 「2·8 독립선언」과 「3·1 독립운동」에 있어서 오늘의 사명과 역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의를 표명한다.

1. 사명(Mission)

식민지 지배하의 동경 유학생들이 지배 세력의 와중에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임무를 찾아 내고 행동한 것처럼 재일대한기독교회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여 억압받고 작은 자된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2. 열정(Passion)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억압받고 작은 자된 이들의 아픔에 공명하고 연대한다. 한반도에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한일 교회들이 협력하여 화해와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3. 행동(Action)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억압받고 작은 자된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교회 밖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어진 은혜를 공유한다.

2019년 2월 8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김 중 현

2.8독립 선언 10주년 기념식, 성대히 거행

도쿄, 오사카에서 국제심포지움도 개최

2월 9일에 행해진 국제심포지움



3.1운동의 도화선으로 알려진 조선인 동경 유학생에 의한 2.8 독립 선언이 당시 동경조선YMCA회관에서 발표된 1919년 2월 8일부터 100주년을 맞이한 지난 2월 8일(금) 오전 11시부터 제일 본한국YMCA 지하 홀에서 '2.8독립 선언 제100주년 기념식'이 내외 귀빈 3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한완상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한 서울에서 설립된 2.8독립 선언 10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의 위원장 이종걸국회의원이 출석하고 여러 곳으로부터 독립운동 참가자를 기리고 2.8선언의 정신 계승을 다짐한 기념사 및 축사가 있었다.

100년 전에 독립 선언이 발표 될 때에는 대표자가 먼저 기도를 드렸더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행사에서도 그것이 답습되어 유학생 연합회 회장의 2.8독립 선언 낭독에 앞서 김인복 서울 YMCA 이사장이 성경을 낭독하고 김종현 제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이 기도를 드렸다. 각 기관, 단체로부터의 축사에 이어서 동경한국학교 학생 및 PTA에 의한 합창이 행사에 꽃을 더한 격이었고 마지막으로 서울YMCA 명예이사장 표용은목사의 축도에 이어 박유식 제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회장의 만세 삼창으로 참석자 일동이 감격 가운데 행사의 막을 내렸다.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 개최 된 오찬회에서는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캐나다연합교회(UCC)에서 참가한 패티 탈벗씨로부터 따뜻한 축사를 받았다.

8일 기념식에 앞서 7일(금) 밤에는 기념 전야제가 개최되어 윤희주장로의 노래와 토크, 한일 전통악기 공연 등으로 100주년

을 축하 하고, 한때 독립 선언이 발표된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화해와 공생을 위한 사역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9일(토)에는 동경(YMCA)에서, 15일(토)에는 오사카(KCC홀)에서 각각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어느 장소에도 만석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2.8독립 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배우고,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2.8독립선언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8일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 '2.8독립 선언 기념 자료실'의 이전과 확장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도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에 추진함에 있어서는 2.8선언 100주년을 기억하는 특별 주일(2월 3일)에 각 교회에서 드려진 기도를 통해 성원하고, 헌금(모금)에 동참해 주신 각 교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지켜 이끌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타즈케 카즈히사 제일본한국YMCA 간사)



기념식에서 기도를 드리는 김종현 총회장



동경한국학교 학생들과 어미니들에 의한 합창

青年會全協

제2회 중앙위원회 열어 '제19회 청년을 위한 연수회' 깊이 논의

2019년 1월 12일(토) ~ 13일(주)에 걸쳐 청년회 전국 협의회(이하: 전협)의 제2회 중앙위원회가 고쿠라교회에서 열렸다. 전협보고가 있는 다음 지방회보고, 각부 보고가 있었다. 회의 시간의 대부분은 토의 사항에 할애되어 중심 주제는 2월 10일(주) ~ 11일(공휴일)에 교토교회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청년을 위한 연수회'에 대해서였다. 더 좋은 모임이 되도록 밤늦게까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틀째인 주일에는 담당 임원이 고쿠라교회, 후쿠오카교회, 후쿠오카중앙교회, 하카타교회, 구마모토교회를 방문하여, 전협 활동보고 및 후원 부탁에 힘썼다. 모든 임원이 각 교회 성도와 청년들과 교류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느껴진다.

중앙위원회 개최시 3일 연휴이었기에 임원들은 다음날 14일(공휴일)에 후쿠오카 관광을 즐겼고, 제2회 중앙위원회를 마쳤

다.

2019년도 전협 활동이 시작하지 벌써 4개월이 지나, 임원간의 친목도 더욱 깊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러한 교류가 임원내에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전국' 청년들로 퍼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다.

(報告: 武庫川教会 李智熙)



동경교회 고등재판소에서도 승소 동경교회의 대표역원 변경을 명하다

김해규씨가 동경교회의 대표역원(담임목사)의 지위가 없다고 하는 판결(2018년7월19일, 동경지방법판소)에 불복하여 동경 고등재판소에 상소하였던 건의 판결이 지난2019년2월20일 내려졌다. 川神裕 재판장은 상소인(김해규씨)의 상소이유의 모두가 부당하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소를 기각하였다.



豊かな味、豊かな心。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이것으로 동경고등재판소도 김해규씨는 동경교회의 대표역원(담임목사)의 지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동경교회의 대표역원(담임목사)의 변경을 명한 것이다. 많은 기도에 감사한다. (보고 : 동경교회 김영천장로)

관서지역부

크리스마스 고민을 나누는 모임 개최

지난 2월 9일 (토) 오후1시부터 오사카북부교회에서 『크리스마스의 고민을 나누는 모임』이 개최되었다. 참가자는 9교회에서 어른13명, 어린이 3명, 총 16명이 참가하였다.



교육부장 박영자목사님의 개최기도를 시작으로 각자 자기소개를 시미즈 노조미씨의 유니크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후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회를 맡은 니오 케이코전도사님의 인도로 3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그룹 워크의 시간을 가졌다. 크리스마스회에 관한 상연물의 정보교환이나 교회학교 문제점 등도 토론되었다. 토론후 각그룹의 대표자가 모인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하였다. 또 실제로 지난해에 있었던 크리스마스회의 모습을 프로젝트로 감상하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은 박시영목사님의 폐회기도로 마무리되었다.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러한 모임을 통해 앞으로도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끝으로 크리스마스회의 자료집 작성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보고 : 박시영 목사)

외기협 전국협의회를 広島에서 개최 과밀프로그램 통해 많은 발제논의

〈히로시마에서 다민족·다문화 공생의 장막을 넓히자〉를 주제로 하여 1월24일~25일, 제 33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했다. 첫째 날은 中江洋一(나카에 요이치)목사(히로시마교회)의 개최에배로 시작하여 지역활동의 쿠리야야시 카츠유키(栗林克行, Asian代表)대표가 ‘일본 제일의 이민 지역에서 공생의 지역으로’ 츠키시다 요시타카목사(月下美孝, 日本基督教団広島東教会)가 ‘한국·조선인 피폭자와의 만남과 관계’, 권현기(權鉉基)씨가 ‘민족교육이 걸어온 역사와 현상’의 발제를 하였다. 모두가 최신 동향을 포함한 풍부한 내용의 보고였다. 계속해서 2019년4월 부터 시작되는 〈신입과 체제, 新入管体制〉를 염두에 두고 KCC의 이근수(李根秀)목사가 ‘관서 외기협 자치단체 요청행동2018’ RAIK의 사토 노부유키



씨가 ‘굴직한 방침, 외국인 인력50만명 수용’에 대한 비판의 발제가 있었다.

히로시마교회가 준비해준 한국요리를 먹으면서 교류회를 가진 후, ‘서일본 호우피해 히로시마 보고’를 들었다. 그리고 ‘헤이트 스피치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히로시마대학 최진석(崔真碩)준교수의 발제와 함께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둘째 날은 이누카미 미즈히로(犬養光博)목사의 성서연구, 한국 NCC 박영락간사의 발제를 들은 후 전체 협의회에서 〈2019년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같은 날 저녁, 제33회 전국집회를 가지고 히로시마지역 그리스도인을 비롯하여 약100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제1부는 일본NCC 총간사 김성제목사가 ‘기류민 : 하나님의 가족에 이르는 길’ 이라는 제목의 설교, 제2부에는 ‘외국인 주민으로 부터 일본사회에 제안’으로 박양자(朴陽子, 재일3세)씨, 이승훈(李昇勳, 한국 출신 영주자)씨, 楊小平(중국출신의 히로시마대학연구원)씨가 준엄하면서도 유모어 있는 제언을 하였다.

협의회와 집회는 결과적으로 이들 동안 10개의 발제와 메시지 등의 매우 빠듯한 프로그램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교회의 현장, 혹은 외국인 지원의 현장에서, 그리고 각각 발제의 핵심이 소화되고 활용된 점은 틀림이 없다. 佐藤信行 (RAIK顧問)

아카시교회 신종국 명예목사 소천 관서지방회에서 35년간 목회봉사



서부지방회 아카시교회 신종국명예목사가 지난 2019년2월21일 폐렴으로 소천하여 고베교회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고 신종국목사는 1935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대한신학교를 졸업하고 1967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일본으로 건너와 고베개혁파신학교에서 배웠으며, 1971년부터 아카시교회에서 14년 간, 1985년 부터 고베교회에서 14년간 목회하였다. 2001년 부터 정년 은퇴하는 2005년 까지는 다시 아카시교회에서 목회하였다.

총회를 위해, 그리고 서부지방회장을 역임, 관서성서신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등의 많은 활약을 하였다.

2019년/제33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자집회 선언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는 2019년 1월 24일부터 25일에 걸쳐 제33회 전국 협의회를 제일대한기독교회 히로시마교회, 일본기독교단 히로시마나가레카와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히로시마에서 다민족/다문화 공생의 천막을 펼치자」라는 주제로, 각지 외기원 및 외기협 가맹 각 교파/단체/한국NCC의 대표자 등 60여명이 참가하여, 다민족/다문화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와 앞으로의 대처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히로시마에 있어서의 외국인 주민 지원 대응, 제일한국/조선인 피폭자 지원 조직, 민족교육의 역사와 현 상황에 대해 배우고, 또 2018년 서일본 호우재해의 피해상황과 지원활동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서지역의 외국인 주민과의 공생사회의 실현을 요구하는 행정교섭의 활동에 관해, 또 2018년의 입관법 개정이 제일외국인의 권리와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헤이트스피치가 일상화되어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침묵하고 있는 일본 사회의 상황이 얼마나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해방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인권을 경시하는 일본의 행정·정치의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존엄을 빼앗긴 자의 소리를 듣고,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방법에 관해 성서로부터 듣고,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 교회의 실천과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 공유하였습니다.

히로시마에서의 원폭의 피해를 알때, 전쟁을 강행함으로써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생명과 존엄을 짓밟아 억압했던 식민지배의 역사를 동시에 우리는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경제 등 일본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과거의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종/성/민족에 의한 여러가지 차별은 아직도 일본 사회를 깊게 갇아먹고 있습니다. 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벌인 과거의 역사를 진지하게 마주하면서 그 과오를 밝히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해와 평화의 실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2018년 12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실종, 사고, 그리고 사망(자살 포함)을 야기해, 국제사회에서 「현대의 노예제도」라고 불리워지는 기능실습생 제도를 온존한 채,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더 나아가 「특정기능」 자격으로 수십만명의 외국인을 열악한 저임금 노동력으로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가 올해 4월에 시작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는 외국인의 인권을 짓밟고 단순히 쓰다버리는 노동력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일 뿐, 포괄적인 이민정책/인권정책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운다면, 인간을 노동력/생산성의 관점으로만 평가하는 가치관은 확실히 사회를 분단시키고 파괴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인권이 보호되는 다민족/다문화공생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민으로서의 생활을 지지하고, 차별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각각의 문화를 서로 살리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다민족/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 우리들은 세계를 향해 일본의 마이너리티의 인권상황을 발신하고, 일본/한국/제일교회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역사를 마주 보며 진실과 화해를 향한 대화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또 일본 국내에서는 풍부한 다양성을 실제로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과 함께, 지자체에 대한 인종차별철폐 기본조례의 제정, 다민족/다문화 공생도시선언 등을 제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헤이트스피치 철폐법의 실효화와 「외국인주민기본법」 및 「인종차별철폐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해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고 배제된 자들과 함께, 그들 중 한 사람으로 걸어감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그리스도를 따라 사회 속의 마이너리티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걷고, 차별과 싸우는 에큐메니컬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의 기독교회와의 협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일본 기독교 교단 히로시마나가레카와 교회에서 「제33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자집회」를 개최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함께 사는 사회의 풍부함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분단을 뛰어넘어 이 지상에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복음선교의 사명으로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을 우리는 결의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제33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자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左に韓国語(改革改版)、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72ページ

●価格：3,0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